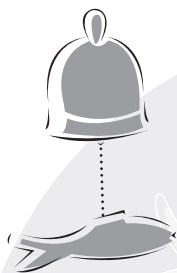


지체의 말씀

불기 2562년 8월 / 통권 450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혜대광사**



證道歌(증도가)

행역선좌역선

行亦禪坐亦禪이요

어묵동정 체안연

語默動靜에 體安然이라

걸어다녀도 참선이고 앉아있어도 참선이고 일체가 참선 아닌 것이 없다
말을 하든지 묵묵하든지 움직이든지 또 고요히 있든지 본바탕은 편안하다.

종우봉도 상탄탄
縱遇鋒刀라도 常坦坦하고

가요독약 야한한
假饒毒藥이라도 也閑閑이로다.

비록 칼을 만난다 하더라도 언제나 담담하고
설사 독약을 마신다 하더라도 또한 한가하고 한가하다.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백중의 의미 / 서경스님

불교상식 · 8

천수경 강의(千手經 講義)

부처님의 말씀 · 12

알림마당 · 14

대광사 8월의 행사

고맙습니다

어린이법회 8월 활동

대학입시기도 안내



표지그림 / 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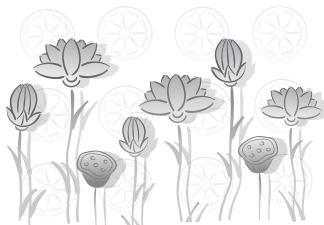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서경스님

● 주 간 / 이숙경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Tel. 055) 602-6267





백종의 의미

서경스님 / 대광사 주지

한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舍衛國)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에 계실 때에 목련존자가 비로소 여섯 가지 신통(六神通)을 얻고 나서 부모를 제도하여 길러 준 은혜를 갚고자 하였다.

곧 도안(道眼)으로 세간을 관찰하니, 죽은 어머니는 아귀에 태어나 음식은 보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목련이 슬피 울며 발우에 밥을 담아 어머니께 갖다 주니, 어머니는 밥을 먹고자 하였으나, 밥이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갑자기 불덩이로 변하여 먹지 못했다. 이것을 보고 목련이 슬프게 울며 부처님께 달려가 이러한 광경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서는 목련의 말을 들으시고, “너의 어머니는 죄의 뿌리가 깊어서 네가 비록 효순(孝順)하여 이름이 천지를 진동할지라도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반드시 시방의 여러 스님들의 위신력을 얻어야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시방의 여러 스님들이 7월 15일에 자자(自恣)할 때에 과거 7세(世)의 부모나 현재의 부모가 액난에 있게 될 이를 위하여 세상에서 제일 맛난 음식을 그릇에 담아 시방의 여러 대덕 스님들께 공양하여야 할 것이다.

이 날에는 모든 스님들이 산간에서 선정을 닦거나, 네 가지 도과(道果)를 얻거나, 혹은 나무 밑에 경행(經行)하거나, 여섯 가지 신통이 자재하여서 성문·연각을 교화하거나, 10지(地) 보살이 방편으로 스님의 모습을 나타내어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모두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공양을 받는다. 그리하여 청정한 계와 스님들의 도가 구족하니, 그 덕이 끝이 없다. 누구라도 이 자자하는 승가에게 공양하는 이는 현재의 부모와 이미 돌아가신 7세의 부모와 6종(種) 친속이 3악도의 괴로움을 벗어나서 곧 해탈할 것이며, 옷과 음식이 저절로 갖추어질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의 부모가 현존한 이는 백 년 동안 복락을 받을 것이며, 만일 이미 돌아가신 7세 부



모는 천상에 태어나 무량한 쾌락을 받을 것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7월 15일 안거가 끝나는 날 스님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공양을 올렸다.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지옥의 고통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백중 즉, 불가에서 말하는 우란분절의 유래이다. 백중의 의미는 승가에 공양을 올려 큰 공덕을 지음으로써 업장이 두터운 선망부모를 천도하고, 현세의 부모가 액란에서 벗어나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오늘 날 백중기도는 대부분의 불자들은 선망부모의 천도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선망부모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란분절에 말하는 과거 7대의 부모나 현재의 부모가 무엇 때문에 지옥고에서 벗어나고 현세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요약해서 말하면, 베푸는 것이다.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들의 주변에 배고프거나 몸이 불편한 이들을 위하여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는 불자들은 보시를 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몸으로 봉사,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 기부를 하는 것도 큰 의미가 될 수 있다.

대광사에는 아름다운 마음과 훈훈한 정을 나누고 베푸는 여러 신행단체와 불자들이 있다. 불교대학 동문회에서는 대광사 크고 작은 행사들에 봉사를 하고 있다. 찬불단 에서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음성 공양을, 시라회 에서는 맛난 차 공양을 베푼다. 꽃꽂이를 하는 보살님들은 아름다운 꽃으로써 법당을 장엄하여, 보는 불자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갖게 한다. 또한 불교대학 졸업생을 주축으로 태백동 무료급식소 급식봉사활동을 한다. 그리고 여러 법회나 행사에 대중들의 공양을 책임지고 준비하고 베푸는 고마운 보살님들이 있다. 항상 불자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법당을 관리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베푸는 이들의 공양 올리는 마음과 정성으로 자신들의 업장은 맑히고, 업장이 두터운 조상들을 3악도의 고통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것이다. 나눔과 베품의 삶을 행하고 실천하며 기도하는 사람만이 선망부모를 천도하고 현세 부모의 평안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불교 상식

천수경 강의(千手經 講義)

9. 발원이 귀명례삼보(發願已歸命禮三寶)

나무상주시방불(南無常住十方佛)

나무상주시방법(南無常住十方法)

나무상주시방승(南無常住十方僧)

시방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께 예배하옵니다.

시방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배하옵니다.

시방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의 제자 분들에게 예배하옵니다.

나무(南無)는 범어 ‘나마스(Namas)’로 귀의(歸依), 경례(敬禮), 예배(禮拜) 등의 뜻이 있습니다. 나무는 신앙의 기본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나무’라는 말이 거듭 봉창됩니다.



대승불교에서의 부처님은 시방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이십니다. 불신의 시방에 충만하며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계시며(常任) 곳곳에 출현하는 것을 신앙함이 대승불교입니다. 부처님이 항상 계시니까 부처님의 가르침도, 부처님의 제자 분들도 다 시방에 항상 계시는 것으로 신앙합니다. 이것이 ‘나무상주시방불, 법, 승’입니다.

『천수경』에서는 이처럼 발원을 마치고 삼보례로 끝냅니다. 그러나 일반 의식의 통례로 보면 조금 어색한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의례의 경우 삼귀의를 제일 먼저 하고 최후에 사홍서원을 하는 것이 규법인데, 『천수경』에서는 사홍서원을 마치고 삼귀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천수경』을 다 독송하고 일어서서 다시 삼보례를 올리는 경우에 삼보례가 이중으로 되는 셈이죠. 의식 진행상 조금 어색한 면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일용집(日用集)』에서는 준제주 지송에 있어서 ‘사홍서원’으로 끝나고 ‘나무상주시방불, 법, 승’은 염불 절차 첫 항목에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합당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의식을 시작할 때는 삼귀의로 시작해서 마칠 때는 사홍서원으로 마치는 것이 정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수경』 독송법이 삼보례 독송을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준용하게 됩니다. 의식 진행에 있어서 중복되는 점은 있으나 별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나무상주시방불, 법, 승 다음에 ‘정삼업진언’을 위시해서 정법계진언을 봉독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에 따라서 열



마든지 가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천수경』으로써는 귀명례삼보로 끝나는 것입니다.

『천수경』은 관음신앙을 천수다라니로 구체화한 경전

『천수경』은 불교의 상용 의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이며, 한국불교의 신앙체계를 이해하는 데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입니다.

이러한 『천수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은 ‘관음신앙’입니다. 관음신앙을 ‘천수다라니’로 구체화한 경이 『천수경』입니다.

한국에서의 관음신앙과 천수다라니 독송의 역사적 과정을 보면, 관음신앙은 자장 법사 이전부터 신봉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수다라니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의상 법사(625~702)의 「백화도량발원문」을 통해서 그때에는 10원 6항문이 있는 『천수경』이 신라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통일신라시대에는 천수다라니가 많이 독송되었음을,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수다라니의 독송예법(作法節次)에 있어서는 참고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송나라 지례 법사가 편집한 『천수대비심주행법』에 의해서 고려에서도 그와 비슷한 형태가 아니었겠는가 짐작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행 독송본 『천수경』의 체제가 완전하게 갖추어진 것은 지금부터 100년이 채 못 되는 최근세의 일



입니다. 현행 독송본 『천수경』은 관음신앙과 천수다라니 독송이 시행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가 첨가되어 지금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천수경』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자면 한국의 밀교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밀교신앙의 기반 위에서 천수다라니가 독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불교의 대중 신앙의 입장에서 『천수경』을 조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토속적 불교신앙이 어떤 것이며, 밀교의 의식체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광범위하게 고찰하면 『천수경』에 대한 이해가 비로소 가능하리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한국불교의 전반에 걸쳐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 말씀(숫타니파타)

제품 뱀의 품

11. 승리의 경 (몸에 대한 욕망을 떠나는 경)

1. [부처님] “걸거나 또는 서거나 혹은 앉거나 눕거나 몸을 구부리거나 혹은 편다. 이것이 몸의 동작이다.

2. 몸은 뼈와 힘줄로 엮여있고, 내피와 살로 덧붙여지고 피부로 덮여져 있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3. 그것은 내장과 위, 간장의 덩어리, 방광, 심장, 폐장, 신장, 비장으로 가득 차 있다.

4. 그리고 콧물, 점액, 땀, 지방, 피, 관절액, 담즙, 임파액으로 가득 차 있다.

5. 또한 그 아홉 구멍에서는, 항상 더러운 것이 나온다. 눈에서는 눈곱, 귀에서는 귀지가 나온다.

6. 코에서는 콧물이 나오고, 입에서는 한꺼번에 담즙이나 가래를 토해내고, 몸에서는 땀과 때를 배설한다.



7. 또 그 머리에는 빈 곳이 있고 뇌수로 차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무명에 이끌려서 그러한 몸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긴다.
8. 또 죽어서 몸이 쓰러졌을 때에는 부어서 검푸르게 되고, 무덤에 버려져 친척도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
9. 개들이나 여우들, 늑대들, 벌레들이 파먹고, 까마귀나 독수리나 다른 생물이 있어 삼킨다.
10.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수행승은, 깨달은 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분명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는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11. 이것이 있는 것처럼 저것도 있고, 저것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몸에 대한 욕망에서 떠나야 한다.
12. 이 세상에서 욕망과 탐욕을 떠난 그 지혜로운 수행승만이 불사와 적멸, 곧 사멸을 뛰어넘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
13. 인간의 이 몸뚱이는 부정하고 악취를 풍기며, 가꾸어지더라도, 온갖 오물이 가득 차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14.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하건대 거만하거나 남을 업신여긴다면, 통찰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대광사 8월 법회 및 행사 ◎

- ◆ 8월 4일 백중4재 (초청법사 종광스님)
 - ◆ 8월 5일 관음재일 다나리기도 (오후 1시 대웅전)
 - ◆ 8월 8일 대학입시 합격기도 (수능 백일기도) 동참금 10만원
 - ◆ 8월 11일 음력7월 초하루 입재/백중5재 오전10시 설법전
 - ◆ 8월 13일 초하루 회향
 - ◆ 8월 15일 칠석기도입재
 - ◆ 8월 17일 칠석기도 회향
 - ◆ 8월 18일 백중6재
 - ◆ 8월 21일 천일기도 900일 회향
 - ◆ 8월 22일 천일기도 1000일 입재
 - ◆ 8월 25일 백중회향 (우란분전/하안거 해제) 오전9시30분 설법전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고맙습니다

♥ 군법당 지원금(6.21~7.20)

하형규 10,000	강란 10,000	이상현 10,000	이미정 10,000
후원회 50,000	유미란 50,000	이승욱 30,000	안옥래 10,000
법연화 10,000	이봉숙 10,000	금강지 10,000	홍예현 10,000
황연주 50,000			

♥ 보름기도 공양

황석태 50,000

♥ 산사음악회 누락자

태양부동산(최덕덕)100,000



태백동 급식소 후원금 현황입니다.

(6. 21~7. 20)

조성부 100,000	쭈카텍 300,000	원광한의원 100,000	이상현 20,000
정연수 30,000	이미정 20,000	박미애 10,000	김지현 100,000
김인복 10,000	구영근 20,000	박덕선 100,000	진해 행복한 태권도 50,000
홍예현 50,000	최진만 10,000	백병만 10,000	이봉숙 10,000
유봉악 10,000	법안성 30,000	찬불단 50,000	정대식 20,000
황두관 10,000	정진이 10,000	홍승운 20,000	서경스님 5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 어린이법회 활동



1. 어린이법회 방학

○ 기간 : 2018년 7월 28일(토)~ 9월 1일(토)

2. 대광사 여름불교학교 템플스테이

○ 일시 : 2018년 8월 11일~12일 (1박2일)

○ 장소 : 대광사

○ 대상 : 초등 1학년~6학년 선착순 50명

○ 참가비 : 35,000원

3. 2학기 법회 개강일

○ 일시 : 2018년 9월 8일(토)

2018년 대학 합격 기원

수시·수능 모든 입시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입재: 8월8일(수) / 회향: 11월15일(목)

석굴암 참배(저녁예불 참석)

기도비: 10만원 / 석굴암 참배: 4만원

문의 및 접수(종무소) ☎ 545-9595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